

계와 동으로 본 서린방의 공간과 사회

An Analysis of Seorin-bang's Space and Society with Regard to Gye and Dong

이 길 훈

Lee, Kilhun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우 동 선*

Woo, Don-Son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pace and society of *Seorin-bang*(瑞麟坊), using the *Hanseong-bu* family registry from the *Gwangmu* period to demonstrate the urban organizational units us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nown as *Seo*(署)-*Bang*(坊)-*Gye*(契)-*Dong*(洞)-*Tong*(統)-*Ho*(戶). It seeks to examine how *Seorin-bang*'s space and society changed with time. First, the study offers approximate demarcation for *Gye* and *Dong* through spatial verification of *Bang-Gye-Dong-Tong-Ho* of *Seorin-bang* in late *Joseon* Dynasty, whose precise locations were formerly undetermined. Second, it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Bang-Gye-Dong-Tong-Ho* which has been widely understood to be hierarchical by previous studies, and classifies the relationship dynamics between *Gye* and *Dong* into four types. Third, the study finds that *Seorin-bang* retained much of its urban structure including roads, plots, and streams and maintained stable population distribu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continuously served as place of residency for many throughout the *Gwangmu* period. This study has major implications in that it illustrates space and society of *Seorin-bang* by converting the family registry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into spatial data, and observes its changes subsequent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주제어 : 한성부, 한성부호적, 광무년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서린방, 시전, 방, 계, 동, 통, 호, 공간, 사회

Keywords : *Hanseongbu*, *Hanseongbu* Family Register, *Gwangmu* period, *Gyeongseongbu Gwan-nae Jijeok Moknok*, *Seorin-bang*, *Sijeon*, *Bang*, *Gye*, *Dong*, *Tong*, *Ho*, Space, Society

1. 서론

이 연구는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을 활용하여 조선 후기의 도시조직인 서(署)-방(坊)-계(契)-동(洞)-통(統)-호(戶)를 실증하여 서린방(瑞麟坊)의 공간과 사회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성립한 서린방의 공간과 사회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부는 조선왕조의 수도이자 중앙관서였으며, 그 행정구역은 서-방-계-동-통-호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1907년부터 일부 일본인 거류지역을 중심으로 정(町)이 생겨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13년의 시구개정사업을 통해서도 동과정이 병존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는 명칭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조직을 해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근대의 급격한 변화양상은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서울의 도시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한성부의 도시조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성부호적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미츠오(吉田光男)가 한성부호적을 통해서 한성부의 도시와 사회를 망라적으로 연구하였다.¹⁾

* Corresponding Author : woods@karts.ac.kr

이 논문은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D1A1B03036199)

1) 吉田光男, 『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2009

국내에서는²⁾ 김영모가 『한성부호적』을 분석하여 지역별 주민의 직업을 살펴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영배가 건축 및 도시적 관점으로 호적자료를 분석하였다. 양옥희는 인구 및 거주형태를 연구하였고, 임학성은 호적자료를 바탕으로 한성부 거주 양상을 살폈다. 김현진은 1903년에 작성된 『한성부호적』에 전거주지가 기재된 호주를 대상으로 거주지 이동을 통하여 한성부의 공간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적 내지 사회학적 시점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최근에는 건축학적 및 도시사적 시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³⁾ 정정남은 관광방의 『한성부호적』과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을 이용하여 통-호와 『지적원도』의 정-번지를 공간적으로 추적하였고, 서동천은 같은 방법으로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1903년의 『호적자료』와 1912년의 『토지조사부』를 공간적으로 비교하였고, 이길훈·양승우는 남대문통을 중심으로 1903년의 호적자료와 1912년의 『구토지대장』, 191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을 공간적으로 비교하였다. 방-계-동-통-호를 공간적으로 비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연구대상을 하나의 방에 국한하고 있어서 한성부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연구방법론을 적극 원용하면서 『광무년간 호적자료』를 1912년의 『구토지대장』과 1917년의 『지적목록』의 소유주를 비교하여 1912년의 『지적원도』에 그 공간을 비정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위치를 비정할 수 없었던 조선후기 방-계-동-통-호를 공간적으로 실증하여 조선후기의 사회와 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중서의 서린방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위계관계로만 해석되었던 방-계-동-통-호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후기의 『광무년간 호적자료』를 통해 실증한 공간과 사회가 일제강점기 하에서 어떻게

2) 김영모, 「한말 한성부민의 신분구조와 그 이동」, 성곡논총, 11권, 1980; 김영배, 「한말 한성부 주거형태의 사회적 성격-호적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2호, 1981; 양옥희, 「서울의 人口 및 居住地 變化:1394-194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임학성,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籍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 漢城府 주민의 住居 양상을 究明하기 위한 一試論」 한국고문서학회, 24권, 2004; 김현진, 「1903년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 한국학연구, 37권, 2015

3) 정정남, 「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 건축역사연구, 20권, 1호, 2011; 서동천, 「1903년 광무호적과 1912년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의 비교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이길훈·양승우, 「서울 남대문통 상업 공간의 근대화 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65호, 2016

변화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광무년간 한성부호적』, 1912년의 『구토지대장』, 1917년과 192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 1921년에서 1942년까지의 『조선은행회사요록』을 주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에서 서린방의 행정체계와 공간

광무호적에는 그 주소를 방별로 ○○서 ○○방 ○○계 ○○동 ○통 ○호로 기재하고 있다. 이외에 호주명, 연령, 본적, 직업, 전거지, 이거시기, 가택의 규모(기와, 초가, 임대, 소유), 호주의 부모, 조부모, 동거친속, 고용과 기숙하는 인구를 기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명, 동거친속 중 장남명, 주소와 직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서린방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의 중부 8방 중의 하나로, 일영대계(日影臺契), 모교계(毛橋契), 고색정계(古索井契)⁴⁾, 황토현계(黃土峴契), 합동계(蛤洞契), 사기전계(沙器塵契), 부정동계(富井洞契), 전옥계(典獄契), 백목전계(白木塵契), 광통계(廣通契)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의 호주명 혹은 호주의 장자(長子)명을 1912년의 『구토지대장』과 191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의 소유주와 일치하는 지번에 대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1912년 지적원도에 표시하였다.⁵⁾

2-1. 서린방의 계

서린방에는 일영대계, 합동계, 광통계, 황토현계, 전옥계, 사기전계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 밖의 계도 존재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 서린방에서 시설물명을 딴 계명으로는 일영대계, 전옥계, 고색정계가 있으며, 시전명을 딴 계명으로는 사기전계, 합동계, 계아전계가 있다. 이외에도 서린방을 둘러싸고 있던 교량들인 모교, 혜정교, 광통교, 송교의 이름을 딴 모교계, 혜정교계, 광통계, 송교계가 존재한다. 일영대계는 혜정교의 서쪽에 세종 때부터 해의 그림자를 보아 시각을 아는 양부일구를 두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합동계는 이곳에 조개전이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 황토현계는 지금의 광화문 네거리에 황토마루가 있었던 것에서 유

4) 古索井契은 고색정계 혹은 고삭정계로 읽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후 고색정계로 표기한다.

5) 물론 동명이인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한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오차는 항상 존재할 수 있겠으나, 장자명까지 확인하여 작업의 세밀함을 높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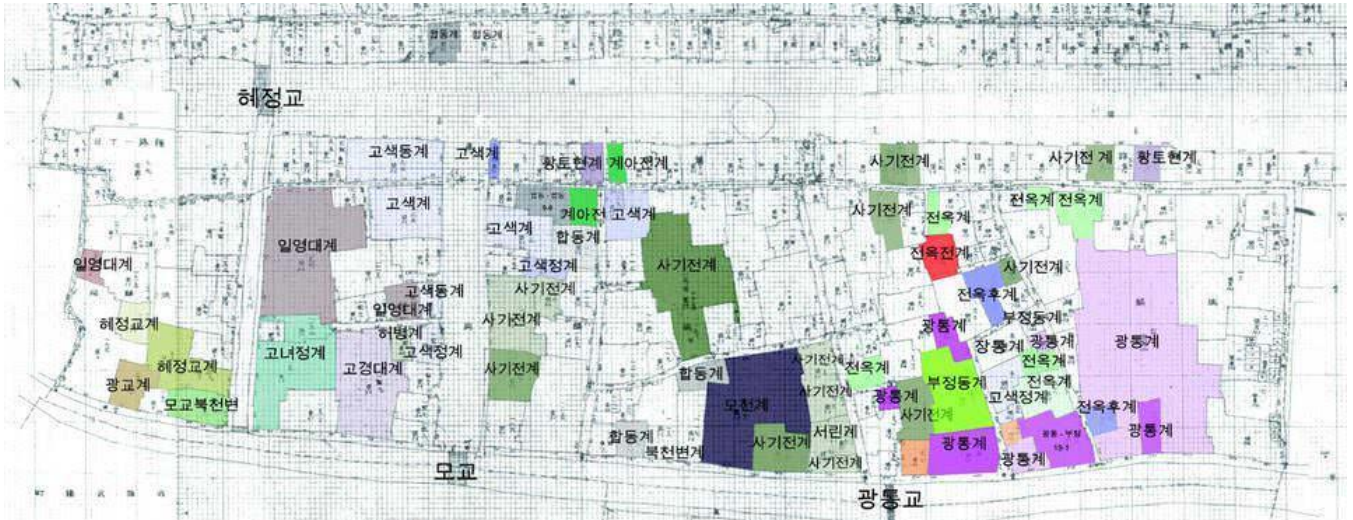


그림 1. 서린방의 계 별 맵핑(추정포함)

표 1. 서린방의 계와 동(□는 판독불가, 이하 동일)

래하였다. 전옥계는 감옥인 전옥서에서 유래하였다. 방을 구성하고 있는 계의 이름만으로도 그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서린방의 자연환경은 서측에 황토마루가 있었으며, 남측에 천이 있고, 모교, 광통교가 천에 걸쳐 있었다. 서린방에는 삼청동천에서부터 흘러온 물길이 종로와 만나는 곳에 혜정교가 있었고, 백운동천에서부터 흘러나온 물길이 종로와 만나는 곳에 송교가 있었다. 서린방의 도시환경은 서측에는 양부일구가 있었고, 내부에는 전옥서와 시전이 있었다.⁶⁾

<그림 1>은 서린방의 계 중에서 1912년의 『구토지대장』의 소유주와 191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의 소유주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한 지도이다. 또한 필지의 소유주가 일대 일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연속되는 필지에 한하여 포함시켜 표시하였다.

<표 1>은 서린방의 계에 포함된 동과 통을 표기한 것이다. 『광무호적』에 따르면, 서린방에는 총 41개의 계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일영대계와 일영계, 혜정교계와 혜천계, 혜경교계 등 같은 계라고 추측되는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41개가 모두 다른 계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각 계는 여러 개의 동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한 개의 동은 여러 계에 걸쳐 있어 계와 동의 관계가 반드시 위계를 갖는 일률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계와 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번호	계	동	통
1	일영대계	송천동	1
		송교동	1, 4
		송교천동	1
		허병동	7
		허병후동	7
		피마동	3, 4
		□화동	3
		빙고동	3
		혜천동	2
		효정교동	7, 8
		혜정교동	7, 8
		혜정동	8
		혜교동	8
2	일영계	고색동	7
3	광□교계	천변동	2
4	광교계	천천동	2
5	혜정교계	천변동	2
		서천변동	2
6	혜천계	월영대동	2
7	혜경교계	-	2
8	포청계	빙고후동	3
9	피마계	피마동	3
10	피마동계	피마동	4
11	중계	피마동	3
12	송교계	피마동	4
13	모교계	허병동	5
		모교동	10
14	모교북천변계	모천동	5
15	고색계	고색동	5, 6
		고색정동	5
		추동	6
		모교동	10
		합동	12
16	고색정계	고색동	5
		허병동	6, 10
		합동	10
		부정동	18

6)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에는 서린방 내에 귀후서(歸厚署)가 표현되어 있다. 귀후서는 관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로, 태종대에 만들어졌다가 1777(정조 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에 그려진 「조선경성도」에는 귀후서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명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17	고색동계	모교동	6
		고색동	6
18	고경대계	허병동	6
19	고녀정계	추동	6
20	허병계	고삭동	6
		허병동	6
21	서린계	합동	9
		사기전동	13
22	원주주인계	-	10
23	합동계	합동	9, 10, 11, 12, 13, 15, 17
		모교동	10
		허병동	10
		상합동	11
24	사기전계	합동	11, 12, 13, 14, 23
		북천변동	13
		사기동	12, 13, 14, 17, 22, 23
		사기정동	14, 17, 22
		사기전동	14, 15, 17, 22
		사기후동	14
		후동	12
		부정동	15
		전옥후동	16
수진상전동	22		
25	사기동계	사기동	14
26	사기계	사기정동	15
		정동	17
27	모친계	북천변동	13
28	북천변계	모친동	13
29	부정동계	부정동	15, 16, 18
30	광통계	부정동	15, 18, 19
		전옥후동	18
		백목전동	19
		백목전후동	19
31	광천계	지전후동	19
		북천동	19
32	백목전계	지전후동	19
33	황토현계	피마동	4, 8
		황토현동	9
		전옥후동	16
		사기전동	22
34	장통계	부정동	18
35	전옥계	사기전동	17
		유전후동	20
		전옥동	20, 21
		전옥전동	21
		전옥후동	16, 17, 18
36	전옥후계	전옥후동	16, 18
		부정동	16
37	전옥내계	전옥동	20
		전옥전동	21
38	전옥전계	전옥전동	21
39	전옥동계	전옥후동	22
40	수동계	-	22
41	계아전계	합동	23

『세종실록지리지』에 중서(中署) 서린방(瑞麟坊)은 일영대계(日影臺契)의 신작로(新作路), 송교(松橋), 혜천(惠泉), 피마동(避馬洞), 낭후(廊後), 모교계(毛橋契)의 허병(許屏), 고색정계(古索井契)의 허병(許屏), 추동(椎洞), 황토현계(黃土峴契)의 피마동(避馬洞), 합동계(蛤洞契)의 모교(毛橋), 사기전계(砂器塵契)의 합동(蛤洞), 사기전동(砂器塵洞), 부정동계(富井洞契)의 부정동(富井洞), 전옥계(典獄契)의 사기정동(砂器井洞), 전옥후동(典獄後洞), 주전동(紬塵洞), 전옥전동(典獄前洞), 백목전계(白木塵契)의 백목전후동(白木塵後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계-동명과 『광무호적』의 그것들의 차이는, 조선 후기에 다양한 계와 동이 출현하였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조선경성도」에 나타난 서린방의 시전인데, 우산, 생선, 닭, 계란, 사기, 수상(壽床), 연죽(煙竹), 과일, 면주, 망상(望床, 잔치상에 필요한 음식)이 나타나 있다. 서린방에서 시전과 관련한 계로는 사기전계, 합동계, 계아전계가 있었다.



그림 2. 「조선경성도」에 나타난 서린방의 시전, 19세기 전반 이후

2-2. 서린방의 동

서린방에는 45개의 동이 있었다. <그림 3>은 이를 도해한 것이다. 동명의 유래는 계명의 유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물인 고색정과 부정에서 온 동명들이 있었고, 다리인 송교, 혜정교, 모교, 광통교에서 온 동명들이 있었다. 피마길에서 따온 피마동이 있었고, 서린동 서측의 황토마루에서 따온 황토현동이 있었다. 또 시전에서 따온 합동, 사기전동, 허병동, 지전후동, 백목전동, 수진상전동이 있었고, 전옥에서 따온 전옥동, 전옥후동, 전옥전동이 있었다.

서린방의 동명 중에는 시설명에 전후(前後)를 붙여 명명한 경우가 있었다. 서린방에서 동에 붙은 전후는 위치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생성된 시기의 전후관계로 생겨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동명에 상하(上下)를 붙이기도 하였었는데, 이러한



그림 3. 서린방의 동 별 맵핑(추정 포함)

사례를 서린방에서 찾아 볼 수는 없었다. 동명에 붙는 전후가 갖는 의미는, 다른 방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3. 서린방의 통,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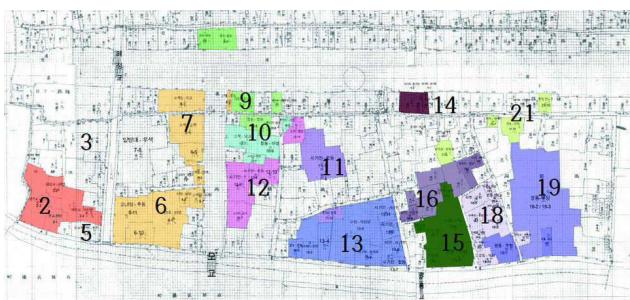


그림 4. 서린방의 통 별 맵핑(추정포함)

서린방은 23개의 통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는 이를 도해한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하나의 통이 하나의 계 혹은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통 별로 계와 동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1통, 7통은 모두 일영대계, 2통은 혜정교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통, 4통은 피마계, 일영대계, 5통, 6통은 고색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의 통이 하나의 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여러 개의 통들이 모여 하나의 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기전계는 11-17통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다.

『광무호적』에서 하나의 통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서린방의 통 중에는 중간에 비어있는 호가 있어 10호를 이루고 있지 않은 통, 10호를 넘는 통, 加1, 加2로 호가 추가되어 10호를 넘는 통이 있다. 통의 호수가 11호로 같아도, 11호로 표기된 경우

와, 加1이 추가되어 11호가 되는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표 2>에 따르면 1906년의 『광무호적』에서 서린방 23통의 총 호수는 214호이다. 1912년의 『지적원도』의 서린방 영역의 필지 수는 서린정 173필지, 종로1정목 41필지로 총 214필지이다. 따라서 1906년 『광무호적』의 서린방의 214호는 서린정과 종로1정목의 214필지에 정확히 대응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통이 10호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10호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이 비어있는 경우는 단순한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거주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지에서 새롭게 계-동-통-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통별 계와 동

통	계	동	총호
1	일영대계	송천동, 송교동, 송교천동, 신작로천동	7
2	광교계, 혜정교계, 일영대계, 혜정교계, 혜천계	천천동, 천변동, 서천변동, 혜정교동, 월영대동	9
3	피마계, 일영대계, 중계, 포청계	피마동, 빙고동, 빙고후동	12
4	일영대계, 황토현계, 피마동계, 송교계	송교동, 피마동	8
5	고색계, 고색정계, 고색동계, 모교계, 모교북천계	고색동, 모천동, 고색정동, 허병동	8
6	허병계, 고색계, 고색동계, 고색정계, 고경대계, 고녀정계	고색동, 추동, 모교동, 허병동	10
7	일영대계, 일영계	허병동, 허병후동, 혜정교동, 고색동	8
8	일영대계, 황토현계	혜정교동, 혜정동, 피마동	7
9	황토현계, 합동계, 서린계	황토현동, 합동	10

10	합동계, 모교계, 고색계, 고색정계, 원주주인계	합동, 모교동, 허병동,	10
11	사기전계, 합동계	합동, 상합동	8
12	합동계, 사기전계, 고색계	합동, 후동, 사기동, 사기전동	9
13	모천계, 사기전계, 서린계, 합동계, 북천변계	북천변동, 합동, 사기전동, 사기동, 모천동	9
14	사기전계, 사기동계	사기전동, 사기전동, 사기후동, 합동, 사기동	12
15	합동계, 사기계, 사기전계, 광통계, 부정동계	합동, 사기전동, 사기정동	11
16	부정동계, 황토현계, 사기전계, 전옥후계, 전옥계	부정동, 전옥후동, 사후동	10
17	사기전계, 사기계, 전옥계, 합동계	사기동, 정동, 전옥후동, 합동	10
18	전옥후계, 전옥계, 광통계, 부정동계, 장통계, 고색정계	전옥후동, 후동, 부정동	10
19	광통계, 광천계, 백목전계	부정동, 지전후동, 북천동, 백목전동, 백목전후동	11
20	전옥계, 전옥내계	전옥동, 유전후동	4
21	전옥계, 전옥전계, 전옥내계, 황토현계	전옥전동, 전옥동, 후동	10
22	황토현계, 사기전계, 전옥동계, 수동계	사기전동, 수진상전동, 사기정동, 사기동	9
23	계아전계, 사기전계	합동, 사기동	12
계	-	-	214

2-4. 서린방의 계-동의 위계

1906년 광무호적의 서린방은 41계, 45동, 23통, 214호로 구성되어 있다. 서린방의 계와 동을 분석한 결과, 그 관계는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하나의 계에 포함된 동들을 검토하고, 하나의 동이 걸친 계를 검토한 결과, 서린방에서 계와 동의 관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4가지란, 첫째, 계가 모여 하나의 동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 둘째, 동이 모여 계를 형성하는 유형, 셋째, 계와 동이 거의 일치하는 유형, 넷째, 계와 동이 부분적으로 겹치는 유형이다. 이를 도해하면, <그림 5>와 같다. 동과 계의 관계를 분석할 때, 표기의 오류와 동과 계의 경계의 변화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이를 유념하면서, 가급적 기록에 입각하여 동과 계의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1) 유형 1: 계아전계

계아전계는 <그림 6>과 같이 달걀을 파는 시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다. 합동은 조개를 팔던 시전에서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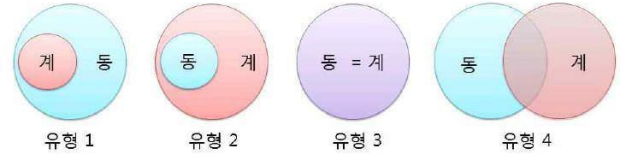


그림 5. 동과 계의 4가지 관계 유형



그림 6. 「조선경성도」에 나타난 서린방의 시전, 계아전과 합동, 19세기 전반 이후

표 3. 계아전계의 동과 통

계	동	통	호	호주
계아전계	합동	23	1	김치옥
계아전계	합동	23	3	정광업
계아전계	합동	23	4	윤도원
계아전계	합동	23	7	경도학
계아전계	합동	23	8	정종식
계아전계	합동	23	9	강유형
계아전계	합동	23	10	정희두
계아전계	합동	23	11	정희덕
계아전계	합동	23	12	이희철



그림 7. 합동으로 추정되는 영역

<표 3>에 따르면 계아전계는 23동에 한정되어 나타나며, 합동만으로 구성된다. 반대로 합동을 살펴보면 합동계, 사기전계, 고색정계, 계아전계로 구성된다. 동이 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다. 합동은 9-15동, 17동, 23동에 걸쳐 분포한다. <그림 7>은 합동의 영역을 도해한 것이다. 이는 동이 계를 포함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2) 유형 2: 고색정계, 고색계, 고색동계

고색정계, 고색계, 고색동계는 하나의 계로 추정된

다. 고색정계는 <표 4>와 같이 고색동, 고색정동, 추동, 모교동, 허병동, 합동, 부정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5통, 6통, 10통, 12통, 18통의 일부 지역이다.



그림 8. 서린방의 고색정계-도성대지도, 18세기



그림 9. 고색정계로 추정되는 영역

표 4. 고색계, 고색정계, 고색동계의 동과 통

계	동	통	호	호주
고색계	고색동	5	1	하운집
고색정계	고색동	5	5	주승렬
고색동계	-	5	7	전효근
고색계	고색정동	5	8	정순옥
고색계	고색정동	5	10	이영석
고색계	추동	6	2	이성근
고색동계	모교동	6	3	태영휘
고색계	고색동	6	4	장전식
고색동계	고색동	6	6	김철현
고색동계	허병동	6	7	김석주
고색정계	모교동	10	5	전효근
고색정계	허병동	10	6	김동진
고색정계	합동	10	9	겸운모
고색계	합동	12	11	오상규
고색정계	부정동	18	7	민규호
고색정계	부정동	18	8	김태경

고색정동은 모두 고색정계에 속해있으나, 고색정계에는 고색정동 이외에도 여러 동이 들어 있다. <그림 9>는 고색정계의 영역을 도해한 것이다. 고색정계와 고색정동은 동을 계가 포함하는 경우이다.

3) 유형 3: 사기전계, 사기계

사기전계와 사기계는 같은 계라고 볼 수 있다. 사기전계와 사기계에는 사기전동(沙器塵洞), 사기정동(沙器井洞), 사기동, 사기후동(沙器後洞), 부정동(富井洞), 합동(蛤洞), 후동(後洞), 북천변동(北川邊洞), 전옥후동(典

獄後洞), 정동(井洞), 수진상전(壽進床塵洞)이 있다. 사기전계에는 사기전과 관련된 사기전동, 사기정동, 사기동이 있고, 사기전과 위치를 나타내는 사기후동이 있어서, 사기전과 관련된 동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안에는 간혹 조개전과 관련된 합동, 우물명인 부정과 관련된 부정동, 전옥과 관련된 전옥후동 등이 있다. 그렇지만 사기전계는 대부분 사기전동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기동에 관련된, 사기동, 사기전동, 사기정동은 또한 거의 모두 사기전계에 해당하기에, 계명과 동명이 가장 일치한다. 사기전계, 사기계는, <표 5>에서 보듯이, 주로 11-17통, 22통, 23통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림 10>은 사기전계의 영역을 도해한 것이다.

표 5. 사기전계, 사기계의 동과 통

계	동	통	호	호주
사기전계	합동	11	1	이용세
사기전계	북천변동	13	6	유진홍
사기전계	합동	13	7	구본순
사기전계	-	13	9	이순태
사기전계	사기동	13	10	이달호
사기전계	사기정동	14	1	김상열
사기전계	합동	12	3	김태성
사기전계	후동	12	4	김성완
사기전계	사기동	12	5	상궁취씨
사기전계	합동	12	7	김원식
사기전계	-	12	8	이건영
사기전계	후동	12	9	황희민
사기전계	사기정동	14	2	정두환
사기전계	사기전동	14	3	안홍기
사기전계	사기정동	14	4	오대영
사기전계	사기후동	14	5	하금일
사기전계	사기정동	14	6	정규환
사기전계	사기정동	14	7	정대환
사기전계	합동	14	9	고동병
사기전계	사기전동	14	10	김옥동
사기전계	사기동	14	11	태학원
사기동계	사기동	14	12	황진국
사기계	사기정동	15	1	배석보
사기전계	사기전동	15	2	김성구
사기전계	사기전동	15	3	윤상용
사기전계	사기전동	15	4	이성근
사기전계	부정동	15	5	이용의
사기전계	전옥후동	16	4	김학현
사기전계	사기동	17	1	이정환
사기계	정동	17	2	윤소사
사기전계	사기정동	17	3	정대환
사기전계	사기전동	17	4	이영선
사기전계	사기전동	17	5	황중윤
사기전계	수진상전동	22	2	이완식
사기전계	-	22	4	김상열

7) 수진상전(壽進床塵)은 조선 후기 잡물전으로 우산, 발 등을 팔던 점포로 경북궁 앞길의 혜정교에 있던 잡화점이다.

사기전계	사기전동	22	6	장인완
사기전계	사기정동	22	8	정규환
사기전계	사기동	22	9	장태환
사기전계	사기전동	22	10	김정호
사기전계	합동	23	6	안기용
사기전계	사기동	23	13	김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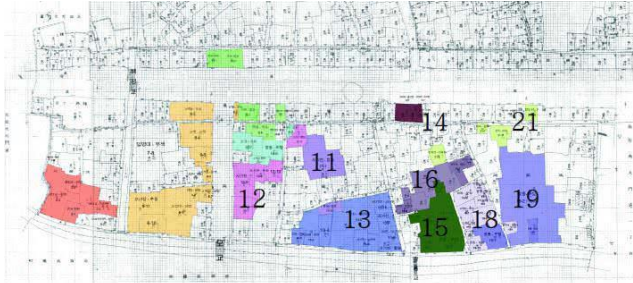


그림 10. 사기전계로 추정되는 영역

4) 유형 4: 광통계, 광천계

표 6. 광통계, 광천계의 동과 통

계	동	통	호	호주
광교계	천천동	2	1	박윤석
광 $\frac{1}{2}$ 교계	천변동	2	2	임소사
광통계	부정동	15	7	손창원
광통계	부정동	15	9	이소사
광통계	부정동	15	10	지호영
광통계	전옥후동	18	4	최유식
광통계	부정동	18	10	피상옥
광통계	부정동	19	1	이보영
광통계	부정동	19	2	박수돌
광통계	부정동	19	3	김영선
광통계	부정동	19	4	이인영
광천계	지전후동	19	5	최경호
광천계	북천동	19	6	김홍삼
광통계	백목전동	19	9	인창순
광통계	백목전후동	19	10	이상진
광통계	백목전후동	19	11	이희성

광천계가 서린방에 1개 호에만 존재하고 광통계와 같은 19통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광천계는 광통계의 표기 오류라고 추측한다. 서린방의 남측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측에 모교가, 동측에 광통교가 위치한다. 광통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광통계와 광천계가 분포되어 있다. 광통계와 광천계에는 천천동, 천변동, 부정동, 전옥후동, 지전후동, 북천동, 백목전동, 백목전후동이 있다. 이러한 동명은 광통교 인근에 위치하였던 전옥, 부정(富井), 지전, 백목전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 같다. 광통계와 광천계는 <표 6>과 같이 2통, 15통, 18통, 19통으로 대부분 광교 북측에 주로 분포한다. 유형 4는 계와 동의 영역이 일부 겹쳐지는 유형이다. <그림 11>은 광통계의 영역을 도해한 것이다.



그림 11. 광통계로 추정되는 영역

3. 조선시대에서 서린방의 사회

3-1. 서린방의 도성방위 의무

영조(英祖)대부터는 삼군문(三軍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방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삼군문은 혼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으로 도성의 방어를 책임지던 3군영을 의미한다. 다시 혼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은 ‘전·좌·중·우·후’의 5개로 나누어져 운영되었는데, 각 방의 계를 삼군문의 운영체제와 연관시켜 도성전체를 방위하였다. <표 7>은 그 방위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를 중심으로 편제된 도성민은 삼군문의 각 조직의 관리하에 군역에 동원되었다. 각 방은 삼군문으로 조직되었는데, 서린방은 전체가 금위영의 후정에 소속되어 관리되었다.

표 7. 각부방계별 방위구역

		삼군문	부	방	
혼련도감	전정 前停	서부	여경방, 적선방, 인달방, 반송방, 용산방		
			좌정 左停	북부	순화방, 의통방
				서부	반송방, 용산방
			중정 中停	서부	인달방, 적선방, 용산방, 서강방
				북부	준수방, 의통방, 관광방
	우정 右停	북부	진장방, 관광방		
		서부	서강방		
		중부	징청방, 수진방		
	후정 後停	북부	광화방, 양덕방, 안국방		
		중부	청진방, 건평방		
금위영	전정	남부	낙선방, 성명방, 훈도방, 둔지방		
		서부	용산방		
		중부	장통방		
	좌정	남부	훈도방, 광통방, 명례방, 둔지방		
		서부	반석방, 용산방		
	중정	중부	장통방		
		남부	호현방, 명례방		
	우정	서부	양생방, 반석방, 반송방		
		남부	호현방, 광통방		
	후정	서부	양생방, 황화방, 반석방, 반송방, 용산방		
남부		광통방, 호현방			
중부		여경방, 반석방, 반송방			
			중부	서린방	

어영청	전정	동부	연화방
	좌정	동부	건덕방, 연화방, 창선방
	중정	동부	연화방, 창선방, 승신방, 인창방
		남부	두모방
	우정	중부	견평방, 관인방, 경행방, 정선방
		동부	정선방, 성명방, 낙선방, 명철방, 두모방
	후정	남부	명철방, 낙선방, 두모방, 한강방

3-2. 한성부호적에 나타나는 직업

호적에 기재된 직업은 9개 항목으로 구분된다.⁸⁾ 이 중에서 유학(儒業)은 호주의 직업이 조선시대 호적에 기재된 양반(職役)인 경우이며, 전현관직(前·現官職)은 호주직업이 품계(品階)가 있는 전·현 국가직인 경우이고, 이속(吏屬)은 품계를 갖고 있지 않는 말단직, 군순(軍·巡)은 품계를 갖고 있지 않은 말단 군관련 종사자, 전문·기술직은 근대에 들어와 새로 등장한 직업과 기술종사자이다. 각 직업군에 포함된 세부직업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서린방의 214호 중 80호는 전현관직에, 76호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외에 유학이 18호, 평민이 17호, 기타가 16호이다. 전현관리 중 전직관리는 43호, 현직관리는 37호에 해당된다. 주로 은퇴한 고위관리가 서린방에 거주하였다. 통별로 살펴보면, 9통, 19통, 21통에는 상업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13통, 14통에는 전현직 관리가 주로 거주하였다.

서린방은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서 서린정과 종로 1정목 일부에 해당한다. 1906년 『한성부호적』에 표기된 소유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그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전현직관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업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였다. 『한성부호적』 이후의 자료로는 1917년과 192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과 1921년부터 1942년까지의 『조선은행회사요록』을 통하여 서린정과 종로1정목의 소유와 회사를 검토할 수 있다.

8) ① 儒業: 幼學, 童蒙, 儒(學), 出身, 讀書人 等, ② 前·現官職: 枝師, 六品, 侍御, 參尉, 參領, 中樞院議官, 陸軍正尉, 別監, 揚巡, 司果, 權任, 司鑰, 待令, 副領, 正領, 正尉, 提調, 監理, 侍講, 正校, 員外郎, 參校, 飯監, 尙宮, 教官, 軍副尉, 守門將, 內侍, 陵令, 都事, 院任員, 護軍, 司勇, 九品, 牌將, 總巡, 掌務 等, ③ 吏屬: 入役, 守僕, 直, 旗手, 書員, 雇員, 員役, 使令, 所任, 守僕, 書題, 奉持, 內吹, 稂宮 等, ④ 軍·巡: 憲兵, 巡檢, 馬隊, 兵丁, 步兵上等, 軍士, 扈衛軍 等, ⑤ 平民: 平民, 良人, 生民 等, ⑥ 商業: 商(業·民), 市民, 藥商(局), 床麈, 典當舖, 鞋店, 懸房, 船商, 柴商 等, ⑦ 農業: 農, 農業 等, ⑧ 專門·技術職: 國民新報運動, 教師, 學校長, 電話課工頭, 大韓每日申報社總務, 石手, 工民, 針工 等, ⑨ 기타는 직업이 미기재인 경우와 원문의 훼손으로 한자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無盲, 人, 亡日人, 鰥, 職家, 召史 等으로 기재된 경우임.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住民 樣相과 都市性格- 光武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1집, 2013.12, 622쪽을 참고하여 작성)

표 8. 서린방 주민의 직업(1906, 광무호적)

통	儒業	前現官職(前)	吏屬	軍·巡	平民	商業	專門技術職	기타	계
1	-	4	1	-	-	1	-	1	7
2	1	5(2)	-	-	-	1	-	2	9
3	3	5	-	-	3	1	-	-	12
4	-	2(1)	-	-	1	4	-	1	8
5	-	4(4)	1	-	1	2	-	-	8
6	1	4(3)	3	-	1	-	-	1	10
7	-	5(5)	-	-	1	1	-	1	8
8	-	1	1	-	-	4	-	1	7
9	1	2	-	-	-	7	-	-	10
10	1	3(2)	-	-	2	2	1	1	10
11	1	5(3)	-	-	-	2	-	-	8
12	1	4(2)	-	-	-	2	-	2	9
13	-	7(3)	-	-	1	1	-	-	9
14	2	7(5)	-	-	-	3	-	-	12
15	1	5(5)	-	-	-	5	-	-	11
16	2	3	-	-	-	4	-	1	10
17	1	2(2)	-	-	2	4	-	1	10
18	1	1	-	-	3	5	-	-	10
19	1	1	-	-	-	7	-	2	11
20	1	-	-	1	1	1	-	-	4
21	-	-	-	-	-	10	-	-	10
22	-	5(2)	-	-	-	4	-	-	9
23	-	5(4)	-	-	1	5	-	1	12
계	18	80(43)	6	1	17	76	-	16	214

4. 일제강점기에서 서린방의 공간과 사회의 변화

4-1. 일제강점기에서 서린방의 공간 변화

1) 필지와 도로

18세기의 「도성대지도」, 1929년의 「지적원도」, 1936년의 「경성정도」를 <그림 10>과 같이 비교하면, 서린방의 도시조직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음을 알게 된다. 조선시대의 필지와 도로가 1936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서린방의 위치적 특징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서린방은 가장 변화하였던 육조대로 인근이었으며, 혜정교부터 흥인지문에 이르는 주요 도로에 접한 지역이었다. 그 위치상의 중요도로 미루어 보아서, 이미 필지와 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도시하부구조 구축의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7년과 192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의 지목을 비교 검토해 보면, 1917년의 대상지역은 모두 대(垓)였으나, 1927년에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로(道路)와 구거(溝渠)가 등장한 것이 확인된다. 이때 분할된 도로와 구거는 확폭을 위하여 조성된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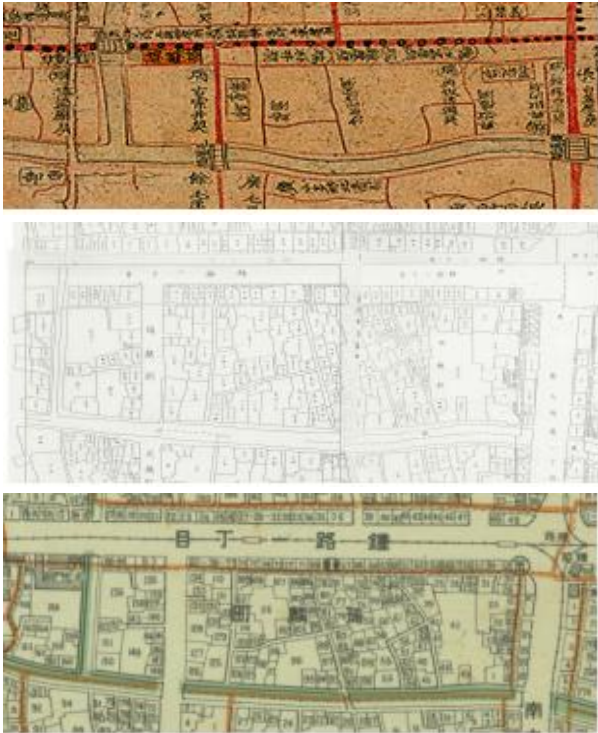


그림 12. 위에서부터 「도성대지도」(18세기), 1929년의 『지적원도』, 1936년의 「경성정도」

2) 지가

1917년과 192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는 지번, 지목, 평수, 지가, 소유자주소, 소유자명이 기록되어 있다. 1917년과 1927년의 서린방의 평당 지가는 변화가 없이 같았다. 필지별 지가는 위치마다 다른데, 서린정의 지가는 19, 20, 25, 28, 40이고, 종로1정목(52-92번지)의 지가는 28, 65, 70, 80, 95, 105, 120이다. 평당 지가의 차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린정의 내부필지 지가는 19, 20이고, 청계천변 지가는 20, 25이며, 피맛골 측 필지 지가는 25이다. 남대문동 측의 필지 지가는 28이며, 모교로 통하는 현재의 무교로에 면한 필지 지가는 40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1정목의 52-92번지 지가를 살펴보면, 대로가 아닌 피맛골에 면하고 있는 필지 지가는 28이었다. 그리고 남대문동 인근의 지가가 120으로 가장 높았고 혜정교까지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서 지가가 65에 이르렀다. 종로1정목 대로에 면하고 남북방향의 소로에 면한 필지는 두 면의 도로에 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일제강점기에서 서린방의 사회 변화

1) 서린정과 종로1정목의 토지소유

1906년에 조선인이 소유하였던 서린방이 일제강점기 하에 서린정과 종로1정목으로 행정구역이 변화하면서 토지 소유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살펴보자.

표 9. 서린정 소유 구분(1917, 1927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소유 구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프랑스	국적불명	국유	회사	경성부
1917	157	11	2	1	-	1	3	-
1927	152	9	2	-	1	14	6	24

<표 9>에서 보듯이, 서린정에서는 1917년과 1927년에서 모두 조선인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다른 정에 비하여 서린정은 일본인의 토지소유가 현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유지와 경성부 소유의 토지가 증가하였다. 이 증가분은 대부분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이 변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었다.

조선시대 후기 서린방의 일부였던 종로1정목 52-92번지는 <표 10>과 같이 서린정에 비하여 일본인의 비중이 다소 존재하였다. 그러나 서린방은 전체적으로 일본인의 진입이 적었던 곳으로 조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0. 종로1정목 일부의 소유 구분(1917, 1927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소유 구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프랑스	국유	회사	경성부
1917	25	11	1	2	2	1	-
1927	27	10	-	1	3	5	7

1917년과 1927년의 『경성부관내지적목록』으로는 소유주의 국적은 알 수 있지만 그 직업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회사명과 소유주명을 통하여 그 직업의 개략을 일부 확인할 수는 있었다.

우선 191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의 종로1정목에는 동경건물회사(東京建物會社)의 소유토지가 있었다. 서린정에는 조선실업주식회사(朝鮮實業株式會社), 한일은행(韓一銀行), 한성시탄재목주식회사(漢城柴炭材木株式會社)의 소유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의 종로1정목에는 동경건물회사(東京建物會社), 광화문금융조합(光化門金融組合), 경성릉흥주식회사(京城隆興株式會社),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東洋生命保險株式會社)의 소유토지가 있었다. 서린정에는 공제무진주식회사(共濟無盡株式會社), 동양흥업주식회사(東洋興業株式會社), 주식회사 한일은행(株式會社 韓日銀行),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소유토지가 있었다.

이외에 종로1정목과 서린정에서 100평 이상의 대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를 추적하였다. 대규모 필지 소유주들 중에서 다른 기록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소유자들은 대체로 회사의 경영진이거나 실업가들이었다. 예를 들어 종로1정목에는 1906년 대한전

일은행의 경영진인 백완혁(白完赫), 정지호의 무은문집을 출간한 정규환(鄭圭煥), 1905년에 재봉회사 하마양복점(濱洋服店)을 창업한 하마 요시타로(濱吉太郎), 가옥임대업을 하던 고미 야스타로(五味安太郎)가 거주하였다. 또한 서린정에는 1898년 경성신문을 창간하고 1911년 최초의 방직주식회사인 경성섬유를 창립한 윤치소(尹致昭), 태창인쇄의 중역인 이보영(李輔榮), 한일은행의 중역인 유병연(劉秉璉), 보산합자회사를 창업한 장제환(張齊翰), 태창무역의 백운수(白潤洙), 경성주식현물거래시장을 설립한 쿠기모토 후지로(釘本藤次郎), 토지가옥을 경영한 모리 카즈지(森勝次), 태창직물주식회사의 백낙원(白樂元), 토목건축업 에나미구미(江波組) 중역이 소유한 토지가 각각 있었다. 종로1정목과 서린정의 총대(總代)인 장기홍이 거주하기도 하였다.

2) 서린방의 회사

1921년부터 1942년까지의 『조선은행회사요록』을 통하여 서린정과 종로1정목에 위치한 회사를 검토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조선은행에 등록된 회사목록을 살펴보면 종로1정목에는 회사가 다수 기재되어 있고, 서린정에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대상 지역은 조선시대 후기에 서린방 때부터 시전이 지속된 곳으로 상업공간의 성격이 유지되었던 곳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조사된 회사목록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상업공간은 밝힐 수가 없다.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서린정과 종로1정목에 존재하였던 회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시기 전반에 걸쳐 자동차관련 회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조업, 판매업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1937년 이후에 일본인 회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서린방의 행정체계는 중서(中署)-서린방(瑞麟坊)이었는데, 이것이 일제하에 서린정(町)과 종로1정목 일부로 변경된다. 그러나 필지 수에서는 변화가 없었음을 『한성부호적』, 『경성부관내지적목록』, 그리고 『지적원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크게 보아서, 공간은 유지하되 방에서 정으로 행정체계가 변화되었다. 전근대 서린방의 필지는 모두 조선인이 소유하였고, 그 직업군을 살펴보면 전현관직자가 1/3, 상업종사자가 1/3, 기타가 1/3이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서린방의 공간적·사회적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혜정교에서 흥인지문으로 향하는 종로통을 따라서 형성된 시전이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시전의 이남으로 청계천의 이북으로 서린방의 내부에는 전

표 11. 서린정과 종로1정목(52-92번지)의 회사 (1921-1942년 『조선은행회사요록』)

회사명	세부업종	주소	소유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조선물산무역	입목연료 및 각종물산 무역	서린정135	이근홍																					
동아홍업	척식 및 사업자금 출자관리	서린정135	윤상무																					
테케라시상회	기계부속품 판매	종로1정목57	김동성																					
한양자동차상회	자동차매매	종로1정목73	이성우																					
조효순상점	포복제주단마포류판매	종로1정목52	조효순																					
아세아자동차부	자동차부품부속품일식	서린정139	明珍錫																					
삼환합명회사	자동차및 기타부품판매	서린정133	이영진																					
부전회사	백모판매석감염료제조판매	종로1정목52	홍경래																					
한양타구시	자동차윤활업,부대사업	종로1정목77	조병상																					
태평당계약회사	매약제조판매	종로1정목84	한정국																					
구정상회	주단포복상	종로1정목54	김순홍 / 鈴川清																					
수남상회	면포건포모직물의 수출입매매	종로1정목55	김태희																					
경성환금	금은위탁판매	종로1정목69	허주/김홍수 / 이장연																					
공생약업	약상업품업의 업무	종로1정목71	민석현																					
조선시멘트	시멘트의 제조판매	종로1정목72	渡邊剛二																					
조선흥신회사	신용고지업	종로1정목69	허주																					
소화화학유지공업회사	부유선광유의 판매	종로1정목71	박준혁																					
조선영화회사	영화의 제작	종로1정목71	최남주																					
조선기업회사	전기공사청부업	종로1정목71	윤석필																					
조선백화사	의료품, 식음료품의 소매업	서린정1	奥井豊藏																					
일본번화	번화잡사양포 등 원료제품 판매	서린정1-1	潮岐喜八郎																					
조선문화사	잡지도서의 출판판매	서린정100-2	서춘																					
학예사	도서 및 잡지의	서린정128	최남주																					
경기노무공급	노무의 공급	서린정132	松原弼龍																					
동아제과	과자제조판매업	서린정135-1	福島西一郎																					
김해광산	금은광산대금업	서린정150	박예분																					
금룡상회	방직, 면직물의 제조 매매	종로1정목61	김시용																					
동양제철소	철물제품, 제조판매	종로1정목71	吉田雅安																					
북양홍업	면양목죽 및 가죽축산업	종로1정목71	大東聞奎																					
길복상점	장제벌채 및 도소매	종로1정목71	藤田源市																					
반도홍업	홍행사업	종로1정목71	박수경																					
신왕홍업사	광업의 경영	종로1정목77	송도호																					
조선식산홍업	농산물의 원료 제조 판매	종로1정목77	恩賀太一郎																					

현관직자가 주로 거주하였다. 이는 서린방이 궁궐과 육조거리에 인접하였기에 관직자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서린방에는 외국인 소유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며, 1937년 이후에는 일본인 회사가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에 비하여 일본인의 침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종로 1정목에서 종로 6정목까지 조선인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서린방이 이에 속하였기에 일본인의 침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계와 동을 중심으로 서린방의 공간과 사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조선시대 후기와 일제강점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를 비정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서린방의 방-계-동-통-호를 공간적으로 실증하여 대략의 계와 동 영역을 표시할 수 있었다. 통은 1통부터 23통까지 서측에서 동측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졌으며 2, 3, 5-7, 9-16, 18, 19, 21, 22통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었다. 서린방은 시전상인을 포함하고 있어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나 전현관직에 종사하는 인구에 구성되었다. 도성민은 계를 중심으로 삼군문의 각 조직의 관리 하에 균역에 동원되었는데 서린방은 전체가 금위영의 후정에 소속되어 관리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는 위계관계만으로 해석되어 왔었던 방-계-동-통-호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서린방의 계와 동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 4가지란, ① 계가 모여 하나의 동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 ② 동이 모여 계를 형성하는 유형, ③ 계와 동이 거의 일치하는 유형, ④ 계와 동이 일정부분 겹치는 유형이다. 앞으로 다른 방들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겠으나, 이 분석으로는 방-계-동이 단순히 위계관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방을 넘나드는 계와 동이 존재하였는데, 그러한 계와 동의 관계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셋째, 일제강점기 하에서 서린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도시구조는 도로와 필지, 하천 등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도로와 천의 확폭이 다소 보였을 따름이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광무년간의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린방에서는 자

동차관련 회사가 다수 분포하였으며, 1937년 이후에 일본인 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서린방에 대하여 조선시대 말기의 호적자료를 공간으로 비정하여 당시의 공간과 사회를 구체화시켰으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변화까지를 살펴 보았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연구의 한계는 한성부의 여러 방들 중에서 서린방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생겨날 것이다. 앞으로 다른 방들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방-계-동의 위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방-계-통-호의 구성방식을 더욱 밝히고 싶다.

참고문헌

1. 조성운,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2. 한국고문서학회 편, 「고문서를 통해본 동아시아 근세 사회」, 한국고문서학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5
3.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4.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 『대한제국의 토지제도과 근대』, 혜안, 2010
5. 이정선,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구성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92호, 2016
6. 山本英史 編, 『伝統中國の地域像』,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0
7. 白石孝, 『明治の東京商人群像』, 東京; 文眞堂, 2001
8.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朝鮮) 編,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東京; 財団法人 東洋文庫, 2004

접수(2018. 1. 17)

게재확정(2018. 3. 23)